



말등대 찾은 수학여행단 7일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말등대를 찾은 다른 지역 수학여행단 학생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계단을 오르고 있다. 강희만기자

## 레저 즐기며 힐링... 2026제주레저힐링축제 12~13일 함덕해수욕장... 지역연계 콘텐츠도 풍성

단순한 관람형 놀이를 넘어 레저를 즐기며 힐링하고 지역상권과 동반 성장하는 '2026제주레저힐링축제'가 이번 주말 열린다.

제주시는 12~13일 함덕해수욕장 일원에서 '2026 제주레저힐링축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5회째 열리는 이번 축제는 '레저와 쉼이 하나 되는 제주'를 주제로 역동적인 여가 활동, 온전한 휴식, 지역 동반 성장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다채롭게 담아냈다.

축제 기간 중 레저프로그램(수상 4종, 육상 6종, 뉴스포츠 3종)과 웰니스 체험(5종), 함덕 마을 연계 프로그램 등 풍성한 체험 콘텐츠가

운영된다. 낮에는 투명가야, 패들보드 등 활력 넘치는 해양·육상 체험이 펼쳐지고, 서우봉 숲길에서는 숲속 명상, 요가, 맨발 걷기 등 마음 돌보는 휴식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밤에는 별빛 아래에서 펼쳐지는 야외 음악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가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올해 축제는 '함덕이 주인공'이 되는 지역 상생 모델을 대폭 강화했다. 축제장 입구와 주무대 사이에는 대형 그물을 설치하고 방문객들이 소원을 적어 매다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함덕 멜월(Mel-Wall)'을 축제 개최 이틀 전부터 사전 운영해 관심을 높인다. 위영석기자

## 제주 체육고 신설 다시 저울질... 이달 TF 첫 회의

도교육청, 전문가 TF 13명 구성... 추석 전 본격 가동  
학생 선수 수요·재정 여건 등 설립 타당성 재검토  
타 시·도 벤치마킹·의견 수렴... 연내 결론 미지수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체육고 신설 여부를 다시 검토할 'TF(태스크포스·전담팀) 운영'을 예고한 가운데 오는 24일 전에 첫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올 연말까지 전국 타 시·도 벤치마킹은 물론 도민 의견 수렴 등도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형 체육고등학교 설립 검토'를 위한 전문가 TF가 조만간 꾸려진다. TF는 도내 체육계와 지자체, 학교장, 학부모 등을 포함해 총 13

명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각 기관을 통해 전문가 위원을 추천받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관을 비롯해 도체육회와 두 행정시 체육회가 모두 참여한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체육특성화반을 설치해 운영 중인 남녕고등학교 학교장과 학부모 등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에 첫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9월 11~16

일)가 끝난 직후인 17일부터 추석 연휴 전인 23일 안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TF는 도교육청이 2024년 완료한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체육고 신설 가능성을 다시 들여다 보게 된다. 특히 학생 선수의 장기적인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이 중점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의숙 교육감 역시 지난달 27일 도교육청 출입 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제주에서 체육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학교 하나가 신설되는 것은 향후 30년 이상의 전망을 내다 봐야 한다. 예산의 전반적인 추이

와 앞으로의 학생 수요, 종목 여건 등을 다시 한번 살피고 실현 가능성과 학교 신설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TF를 중심으로 타 지역 체육고 벤치마킹,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올해 안에 결론이 나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하반기에 일련의 과정을 통해 TF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걸 토대로 교육감이 검토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TF 차원의 협의 과정이) 내년까지 연결이 될지 아니면 의견을 모아 전달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학교 지원 약속 현장 변화로 증명해야”

전교조 제주지부 7일 성명

제주도교육청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조직 개편안을 공개한 가운데 전교조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교조제주지부)가 “학교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7일 성명을 내고 “학교 지원을 조직의 중심에 두겠다는 이번 개편의 방향은 긍정적”이라면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실제 지원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한시기구인 '학교지원정책추진단'을 두고 분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기능을 조정해 학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027년 추진단 운영부터 2028년 조직 설계까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참여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학교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김지은기자

## 도민평가단 “제주교육 공약 직접 살핀다”

제주도교육청, 도민평가단 40명에게 위촉장

어제 두 번째 회의... 10월 최종 권고안 공개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감 공약실천 계획 수립 단계에서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도민평가단'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도교육청은 7일 오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도민평가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도민평가단은 만 18세 이상 도민 28명과 학생위원 12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도민위원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성별, 연령, 지역 등으로 무작위 선발됐다.

앞서 도민평가단은 지난 1일 첫 회의에서 5개 분임을 구성하고 공약실천계획 평가를 위한 안건을 선정했다. 위촉장 수여 직후 열린 이날 회의에선 분임별 토의를 통해 공약의 장점과 문제점을 살핀 것으

로 전해졌다. 교육청 담당 부서와의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공약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향후 계획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도민들이 직접 학습·토론하며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도민평가단이 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민평가단의 최종 권고안은 오는 10월 중에 공개된다. 교육감은 같은 달 말까지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와 최종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해 공표하게 된다. 김지은기자

## 제주대학교 건물 옥상서 불... 40명 대피

제주대학교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나 학생·교직원 등 4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0분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의 한 연구소 옥상에서 불이 났다는 직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오후 3시15분쯤 완전히 꺼

졌다.

이날 화재로 당시 근무중이던 교직원 20명과 학생 20명 등 총 40명이 대피했다.

또 2층 건물 옥탑 내·외부 등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 사랑으로

# 2026 평화의 섬 제주놀이 한마당

일 시 : 2026년 9월 12일 (토) 18:00~21:00까지  
주최·주관 : (사)한국가수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장 소 : 탐동해변 공연장  
후 원 : 제주특별자치도



박군봉  
회장(박문환)



심진아  
기획이사(성순심)



김혜아  
MC(김순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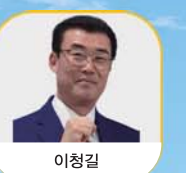
김태하  
(김영진)



최승혜  
(최영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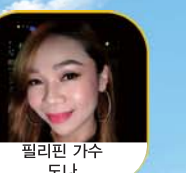
서우중



이청길



백영심



필리핀 가수  
도나



필리핀 가수  
코라



김승혜  
(김영미)



하송세울  
(김남진)



예주  
(김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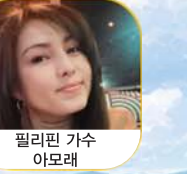
양희리  
(이영희)



조인  
(장승만)



필리핀 가수  
에라



필리핀 가수  
이모래



송비민속무용단  
단장 김정열



버들이 아카데미  
복창구 (최은정 외)



카멜리아현 퍼포먼스  
(오현서단장외 10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보조금지원행사